

한화그룹, 고졸사원 1200명 채용

공채 500명에 인턴 700명 선발 예정 ... 그룹공통 사내대학도 운영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은 3월12일부터 26일까지 그룹 채용사이트(<http://www.netcruit.co.kr>)를 통해 공채 500명과 채용전제형 인턴 700명 등 1200명의 고졸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원서접수를 한다고 발표했다.

고졸 공채의 지원자격은 현재 3학년 1학기에 재학중이고 2013년 2월 졸업예정인 학생이고, 채용전제형 인턴은 2014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현재 2학년 1학기 재학생)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서류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은 4월15일 서울과 전국 주요 시·도에서 한화 인적성검사(HAT)를 받고, 2차례의 면접을 거쳐 5월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채용전제형 인턴은 한화인적성검사(HAT) 합격자 중 1차 면접과 여름방학 인턴프로그램 기간의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하고, 최종 합격자는 2학년 겨울방학과 3학년 여름방학 현장실습을 하고 졸업 후 입사한다.

한화그룹은 선발된 인원들에게 장학금 지급, 사내대학 운영, 학사학위 취득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어학과 교양 등 공통과정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 전문과정까지 포함하는 커리큘럼을 개발해 한화그룹 공통의 사내대학을 운영하고, 근무평가 우수자에게 야간대학과 방송통신대학 학비를 지원한다. 또 회사별 사내 기술훈련 과정을 개설해 업종별 특화교육도 실시한다.

장일형 한화그룹 사장은 “실질적인 학력 핸디캡 극복대책을 마련해 궁극적으로는 고졸 직원들이 학력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12>